

소설 <영원한 제국>의 작가, 이인화씨가 지난 10월 27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소설가, 공지영씨와 함께 미주지역 순회 낭독회를 다녀왔다. 한국문학작품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국제교류진흥회에서 마련한 이 행사에 참석한 그는 미국 라스베가스를 시작으로 유타 주와 아이오와 주, 캐나다 밴쿠버 등을 순회하고, 미국문학번역가협회의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현지 작가들과의 교류 기회도 가졌다.

## 한국작가 미주지역 순회 낭독회 참가 후기 라스베가스의 새벽



이인화 / 소설가

미국에 도착하여 여장을 푼 곳은 라스베가스였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1936년에 건설된 후버댐의 물과 전기로 만들어 낸 인공의 도시, 이제까지 여행한 도시들 가운데 가장 문화와 거리가 먼 듯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알타, 즉 아메리카 문학 번역자 협회의 콘퍼런스가 열리고 있었다.

라스베가스를 건설한 전설적인 갱, 석시 시걸을 그린 영화 「석시」의 마지막 사운드 트랙은 <오래 전에 그리고 머나먼 곳에서(Long ago, Far away)>였다. 조직의 돈으로 사막에 호텔을 세우려 했던 석시, 그가 사랑했던, 그러나 그의 돈을 횡령한 애인, 도박과 환락, 석시가 그린 사막의 신기루들, 총탄과 함께 사라진 야망... 그 모든 것이 오래 전, 그리고 머나먼 곳의 일처럼 느껴졌다. 이제 라스베가스는 디지털 카메라를 든 중산층들의 관광도시다. 유럽의 미니어처 같은 건물들이 번쩍거리고 고대 로마의 판타지가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으로 조악하게 재현된 공간이었다. 술집의 텔레비전에서는 부시가 미국의 적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고, 리조트에서는 대학교수들과 번역문학가들이 탈식민주의 문학을 논하고 있었다.

나와 공지영 선생도 그들 사이에 끼여 작품을 낭독했다. 영문학을 전공한 공지영 선생은 의젓하고 의연했으나 국문학을 전공한 나는 좀처럼 마음의 혼스러움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국문학'이 아닌 '한국문학'의 낯설 때문이었다.

볼리비아 문학, 포르투갈 문학, 이집트 문학 옆에 섞여 있는 한국 문학. 거기에는 내가 오랫동안 익숙했던 이념이 완전히 탈신비화되어 오롯이 드러나고 있었다. 베네딕트 앤더슨의 말

처럼 애초에 '국문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였다. 근대화의 시대 다양한 계층적 차이, 지역적 차이, 문화적 차이를 녹여서 국민국가의 단일성으로 통일하기 위해 '국어'를 통한 혁명이 필요했고 그 무기가 '소설'이었던 것이다. 세계에는 194개의 국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문학에 중사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한국문학은 194분의 1일 수가 없었다. 내면적으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그래서 더 애뜻하고 안타까운 우리 근대국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한국문학이 아니라 '국문학'이었다. 성스러운 것이었고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촌스러운 것이기도 했다.

라스베가스에서 한국문학은 194분의 1로 출발한다. 이 수치와 구체성이 세계화의 논리인 것이다. 열심히 한다면 194분의 10이 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그 정도를 바라며 내밀한 열정에 자신을 맡겨 나를 송두리째 불태울 수 있을까. 라스베가스는 그래야 한다고 속삭인다.

자기 연민처럼 추한 것은 없다. 인간은 과거를 잊고 미래를 위해 자기를 태워 없앨 때 고귀함을 획득한다. 그래도 끝끝내 잊지 못하는 과거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몫이고 예술의 몫이리라. 공적인 영역에서 현재는 오직 진정한 현재(미래)의 의미 있는 과거일 때만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미래에는 '국문학'이 없고 '한국문학'이 있을 뿐이다.

한국문학의 눈으로 보면 국민국가 시대에 형성된 진보와 보수, 퇴행적 대립도 새롭게 다가왔다. 평소 거의 만날 기회를 갖지 못한 공지영 선생과도 오래 사귀는 것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

었다. 한국에서 그분은 '진보적인 작가'로 평가되고 있었고 나는 소위 '보수적인 작가'였다. 그러나 만나보면 두 사람은 진보, 보수이기 이전에 '작가'였고 모든 부류의 '꼴통'들을 비슷하게 혐오하고 있었다. 나는 나를 수식하는 '보수'라는 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규정되는 이 개념에 회의를 느낀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세 가지를 존중한다. 첫째는 합법성이다. 보수주의자는 어떤 경우에도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혁명 같은 급격한 정치적 변화에 반대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군대가 나서서 대통령을 갈아 치워야 한다는 극언이 '보수'라는 허울을 쓰고 있다.

둘째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이다. 보수주의자는 반드시 기존의 질서가 지지하는 공익을 위해 자기 자신의 재산, 시간, 노력을 희생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모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불평, 불만의 목소리들이 '보수'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셋째는 지도력이다. 보수주의자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변화의 방향을 읽어서 사회적 실천에 임한다. 그의 숭선수범에는 모두가 수긍하고 동참할 수밖에 없는 힘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보화와 세계화, 전문화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새 시대에도 낡은 냉전 체제의 법과 이분법을 가져가겠다는 논리가 '보수'라고 지칭되고 있다.

나는 얼마 전 자원해서 20년간 논문을 써온, 그리고 지난 10년간 교수로 지내온 국어국문과를 떠나 낯선 공과대학 계열로 전공을 옮겼다. 앞으로도 소설을 계속 쓰겠지만 직장에서 나는 디지털 미디어 학부에서 게임과 영화 같은 영상 콘텐츠를 연구하고 가르치게 될 것이다. 신중하게 생각한 결과 내 분야에서 축적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변화하기로 결심했다.

나 같은 둔재가 마흔이라는 나이에 새 전공을 개척한다는 것은 돈키호테 같은 짓이다. 새 분야에서 실적을 내지 못해 영원히 탈락할 위험이 크다. 그러나 작가에게 안정과 동어반복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을까. 거기에 변화의 방향성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믿기에 동요와 불안은 찾아 나는 떠났다.

이른 새벽 리조트에서 일어나 조깅복을 입고 달려간 벨라지오 호텔 앞에는 이름 모를 열대 수목들이 아직 푸름을 자랑하고 있었다. 가끔 불어오는 찬바람에 씻기면서 청명한 새벽 하늘은 새록새록 밝아왔다. 라스베가스에도 겨울이 오리라. 지난간 계절은 꿈의 영상이 되어 물밑으로 스며들 것이다. 마음을 깡그리 비운 자, 현실에서 몸을 돌린 자, 외로운 마음의 사냥꾼만이 새봄을 볼 수 있으리라.

라스베가스에서 한국문학은 194분의 1로 출발한다. 이 수치의 구체성이 세계화의 논리인 것이다. 열심히 한다면 194분의 10이 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그 정도를 바라며 내밀한 열정에 자신을 맡겨 나를 송두리째 불태울 수 있을까. 라스베가스는 그래야 한다고 속삭인다.



▲ 패널들과의 만남(UCLA)



▲ Brigham young 대학교에서의 낭독회

나는 호텔을 떠났다. 새 운동을 얻어 정신 없이 달리고 싶던 어린 날, 생명의 어린 날을 상기하며 나는 달렸다.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라스베가스의 새벽을 달렸다. 유타로, 아이오와로, 밴쿠버로, 로스앤젤리스로. 세계를 가득 채운 빛 속에 용해되어 내 목숨이 사라질 때까지. 라스베가스의 새벽 허허벌판을 달렸다. 앞으로 우리 문학이 세계인의 문학이 되어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싶은 열망에 달리는 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N



▲ <영원한 제국> 영문 번역책